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아내와 결혼할 건가요?” 남편의 대답은 당연하다는 듯 짧고 단호하게 “네”였다. 남편 상담을 마치고 아내를 따로 불러 아내에게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아무 말이 없는 아내에게 잠시 후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행복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느 숫자에 해당이 되나요?” 아내는 숫자 “2 정도에 해당한다”며 힘없는 소리로 “꽤날 남편은 술 마시고 집안일은 뒷전이고 애들 뒷치닥 거리에 집안일은 해도 해도 티도 안나고 내 인생은 뭐가요? 휴.” 깊은 한숨을 내 뿜는 얼굴엔 마치 “나는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다.

여성가족부 다시 존폐 위기

남편에게 아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행복해지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오도록 과제를 내주고 부부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 들어서니 한 직원이 “에이-여가부 없어져라~ 너무 돈을 적게 줘요. 센터가 다른 부처로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이 많지 않기에 산하기관들 역시 예산이 적고 현장에서 매월 받는 월급은 카드 결제날에 허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져가 버린다. 이런 불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로 여기저기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

전 매 광 장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여성이 행복하면 사회 모두가 행복하다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 51.9%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 반대는 38.5%였다. 남성의 64.0%는 찬성, 29.8%는 반대. 여성은 폐지 찬성 40.0%, 반대가 47.1%였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스무살을 맞지만 선거 때마다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론! 요즘 정치권에서 폐지 논란이 또 다시 뜨겁게 일면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젠더 갈등 조장이 그 이유이다. 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오히려 남성 혐오나 역차별적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낭비 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 해 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여가부의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가족 돌봄 7,375억원, 청소년 보호 2,422억원

등으로 전체 예산 1조 2,325억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권익 보호에 1,234억원, 경력 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 취업 지원에는 982억원이 쓰였다.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 분야에 비중이 높다. 올해에도 예산 중 62%는 가족 돌봄 사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쓸 예정이라 한다.

물론 일을 못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를 신설해야 맞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남녀갈등이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데에는 먼저 오해를 풀고 가야 할 것 같다.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성평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구성

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와 경력단절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와 저출산, 다문화 가족 문제를 다루는 등 혁혁한 공들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라치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눈다고,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반감을 갖거나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

차별·혐오 왜곡된 의식 문제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는 오직 여성만의 인권이나 삶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는 아니라는 것과, 차별이나 혐오는 어느 한 부처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건 다른 부처를 신설하건 간에 여성, 가족, 돌봄 등 어느 부분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면밀히 따져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내담자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려면 네일 내일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야 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다. 잘하겠다”며 다짐하듯 입술을 꼭 물었다. 여성이 행복하면 여성과 관련된 남성뿐 아니라 사회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을 정작 내담자의 남편만 아는 것일까?

에 세 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올부짓듯이 웅웅거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 해마다 이맘때의 바람은 하룻밤 사이 온 들녘을 발가벗겨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웬일인지 모두가 찬사를 던지며 방방곡곡 단풍 구경을 떠날 때는 잠잠하다가도 겨울을 몰고 오는 대지의 가쁜 숨소리에만 잠잠조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

발가벗은 나뭇가지 사이를 휘돌아나오는 바람을 맞으며 빈 들판에서 있노라면, 오히려 안도의 깊은 호흡이 터져 나온다.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벗어주고도 초연히 드러누워 있는 빈 들녘. 그 허허로

운 겸허에는 시작과 기도를 기대할 수 있는 웅송깊은 아량이 담겨 있다. 예고도 없이 불려다니는 바람의 심술도 온 가슴으로 쓸어 담고, 어귀에 서서 숨 가쁘게 나부끼는 역새꽃 무더기까지 마지막 생명을 태울 수 있도록 보듬어 안은 모습은 가히 성자(聖者)의 경지가 아닐까.

휘적휘적 은빛 너울을 출렁거리는 역새꽃을 헤집어 부드러운 솜털을 가만히 얼굴에 대어 본다. 순간,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몽글하게 토해지는 단어 하나.

‘어머니...’

오늘 그토록 빈 들녘을 헤매었던 실체는 어머니 때문인 듯하다. 시가(嫗家)와 남편에게 충실 하라는 말씀이 전부인 걸로 알고 진정은, 아니 어머니는 늘 뒷전이였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폐내어도 폐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라고 편할 대로만 생각했다.

내 어머니 역시 누군가와 마주하면 뭇해줄까, 뭇 먹게 할까, 어떻게 해야 상대가 편안할까만 생각하며 평생을 사셨다. 호랑이 같은 남편 수발에 굶이지 않던 손님 접대는 그만두더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넷, 그리고 자식을 8남매로도 모자

라 전쟁아가가 된 친척들까지 건사를 했으니 그 세월이 어찌하셨을까.

맺은 인연이 많아서인지 떠나보내는 일도 아들이 나게 하렸다. 시부모님을 정성껏 보내드리고, 시누이 넷과 친척 조카 셋을 짝지어 분가시켰으며, 그 많은 자식들까지 모두 어머니 곁에서 떼어놓았다.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온 힘을 다했으나 호들갑스럽지 않고 천연하렸다. 보낼 때 그리하였듯 구순의 연세에도 자식 중 어느 하나 곁에 있을 수 없는 현실까지 당연하게 수용하신다.

어머니 앞에 서면 바람도 출렁임도 없는 깊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한동안은 사람이 어찌 그리 무딘다고 한결같은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다. 때로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당신 곁의 모든 것들을 여름 장마에 쑥쑥 자라게 하고, 가을비에 잘 여물도록 돕기 위해 평생 부산하셨던 어머니. 추수가 끝나버린 지금, 어머니의 빈 들녘에는 긴 고요가 감돌고 있다.

나는 믿고 싶다. 그 빈 들녘에는 최선을 다했던 세월만큼의 그리움과 꿈이 있어서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찾아 이루어 내곤 하신 어머니의 자생력을 지금껏 보아왔기에 말이다.

어젯밤 어머니의 전화 음성을 들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아플까 걱정이지.”

강건한 척하셨으나 어머니의 음성에서 마른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살면서 어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도 잊고 살았다. 정작, 어머니의 얼굴에서 화장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오히려 어머니가 나와 같은 여자였음을 통감했다.

불현듯 오늘 황량한 빈 들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겨울의 가나인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 어머니의 들녘을 바라보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들의 유년과 어머니의 젊음이 담겨 있고,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역센바람 소리로 표현해도 진실한 노래로 들리게 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꺾이지 않는 억새꽃 같은 어머니. 그 은근과 끈기로 세명의 싹을 틔우는 인내를, 오늘 빈 들녘에서 아니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사 설

등록금 동결 지역대학 재정 악화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올리지 못하고 14년째 동결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산정 방법’을 발표하면서 최대 인상한도를 1.65%로 제시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이전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가 정한 ‘1.65% 이내 인상’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마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대학에서는 최소한의 인상조차 할 수 없다. 실제 전남대와 조선대, 순천대, 광주대 등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동결 쪽으로 결정 지을 분위기다. 이 같은 등록

금 동결은 대학의 질을 더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의 2009년 이후 14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통제는 고스란히 지역대학들의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대학은 재정난으로 시설을 늘리거나 보수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진 확충 등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는커녕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이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대학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인하의 무기로 휘둘러선 안 된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화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장철학 대가 상임선대위원장 영입 주목

노장철학의 대가인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안 후보는 지난 18일 일정을 취소하고 최 명예교수 고향인 함평의 자택을 찾아 최 교수와 차담을 나눴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중앙철학의 대가가 영입된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안 후보와 최 교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 후보가 함평 ‘호접몽가’에서 최 교수와 지도자의 덕목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바 있다. 안 후보가 중도 확정성 있는 인사를 영입해 세 불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너무 피상적이다. 최 교수가 아니어도 그런 인물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 교수의 영입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저간의 우리 정치가 말 싸움과 몸싸움,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

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 교수 같은 인물은 참신함을 주기 때문이다. 최 교수가 현실 정치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최 교수는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철학자가 함평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도 안 후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평소에도 최 교수님을 존경해왔다. 쓰신 책도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로 배움을 많이 얻었다”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안 후보를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도덕적 결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안 후보와 최 교수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진영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기 바란다.

목포 ‘과잉 방역’ 필요하다

기지사첩

설 명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포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순식간에 목포를 뒤덮은 오미크론 확진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무서운 기세로 파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했다.

목포에서는 지난 13~14일 2만 7,812명(선제 검사 2만375명 포함)이 검사에 참여했는데, 확진자는 14일 86명(첫날 선제 검사 44명 포함)이, 15일 78명(둘째 날 선제 검사 40명 포함)이 각각 발생했다.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도 운영중으로 농공단지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파력이 빨라 무차별적인 감염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대한 고비를 맞은 목포시는 현재 ‘일상 멈춤’을 선택하고, 방역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가운데 목포를 포함한 나주·영암·나주 등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특히 목포시는 시내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코호트격리를 단행했고 사우



이주연
제2사회부 기자

나 등 목욕탕, 유치원, 학교, 유흥업소 영업장이 자진 휴업하도록 조치했다. 목포 시민들의 일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방역의 독이 무너지면 일상도, 지역 경제도 흔들린다는 위기 의식 아래 모두가 방역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방역 준수 노력과 적극적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시설이 일부 해제됐는데, 약간의 감소세를 상황 호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추운 겨울이 더욱 혹독해질 것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위해서는 ‘과잉 방역’이 절대로 필요한 때다.

특 지 광 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주말 내내 주변의 산등성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희뿌연게 보였다. 이맘때쯤이면 오래 겪는 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겹치다 보니 웬지 마음이 더 답답하고 갑갑했다. 이제는 일상화된 미세먼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도시숲’

미세먼지 감소 ‘도시숲’ 확대해야

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숲’이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 농도는 25.6% 낮다.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 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자연 공기정화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

시숲’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소음저감 등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듯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도시숲 면적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도시숲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도심에 도시숲을 늘리기 위한 기초 숲 자체가 부족할뿐더러 도시숲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서다. 실제로 서울은 숲이 주로 도시 외곽 산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역 등 도심 생활권에는 숲과 나무가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니 말 다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수직숲’,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 ‘그린커튼’, ‘학교 숲’ 등 말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공습 앞에 머뭇거리길 여유가 없다.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

/김학수 통합중앙교육원 교수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국록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진 부 (062) 720-1040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편 집 부 (062) 720-1073 논 설 실 (062) 720-1006 전 산 실 (062) 720-1033 월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 고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3 •사회광 010-5601-2219 •FAX (062) 720-1080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